

#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스페인, 포르투갈. 야누스의 두 얼굴 모로코

김성규

군포시청 건설도시국장(연수단장)

2012년도 상반기 방재담당공무원 해외연수에 함께 참여해서 선진국의 자연재해 예방 및 방재 시스템 등을 견학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방재에 대한 마인드가 향상되고 산 교육의 기회가 되었다. 향후 방재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본다.

더욱이 의미있고 뜻 깊은 것은 방재공직자 해외 연수단의 단장을 맡아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땅과 물이 설은 이역만리에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8박 10일 동안의 해외연수를 아무런 사건 사고없이 잘 마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연수단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보지 않는 땅을 간다는 것은 생의 축복이다” 우리 모두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번 연수대상국 스페인, 포르투갈은 13세기 해양대국으로 옛날 커다란 야망을 품은 탐험가들이 바다를 향해 나아가며 겪었던 좌절과 영광을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예스러움이 묻어나는 골목길을 걸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나라이고, 모로코는 현실과 신화사이를 오가는 마법의 나라다.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는 평소에는 관심이 있었고 방문하고 싶은 나라였는데 방재연수 기회를 잡아갈 수 있게 되

어 더 없는 영광이었다.

## 봄비와 함께 설레임과 기대감을 안고 떠나는 연수

연수를 떠나는 날 조금은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데 봄비의 향연으로 대지는 촉촉하고 나의 마음은 차분하면서도 안정된 마음으로 모처럼 일상의 업무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간을 갖을 수 있었다. 공항으로 향하는 내내 차 안에서 상념에 잠겼다. 어느 순간 잠시 현실의 생각과 마주하게 되어 차창을 보았을 때 인천대교를 지나고 있었다. 바다와 해무 그리고 물 위에 뜬 다리는 참으로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나에게 선사했다. 아름다움의 끝에서 내 마음의 큰 울림이 왔다. 인천대교의 웅장함과 거대함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뿌듯함이 주체할 수 없이 밀려왔다.

그런데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해무에 대한 아름다움이 연수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무로 인해 비행기가 제대로 뜰 수 있을런지의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무로 말미암은 내 생각은 기우로 끝나고 마침내 출국 수속이 끝나 정상적으로 비행기에 탑승해 핀란드의 헬싱키 공항을 경유한 뒤 첫 연수국인 스페인의 마드리드 공항에 도착하여 해외연수를 시작하게 되었다.

### 합리적이고 실사구시에 강한 나라, 장구한 역사와 잘 보존된 문화유적 돋보인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수리하천연구센터(CEDEX)를 방문하여 이곳 연구에 관해서 설명을 듣게 되었다. 이곳 수문학회에서는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수리학 연구실, 기획연구실, 관개용수에 관한 기술, 생태계와 물의 질 연구등을 연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 인력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해서 17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중 88명은 대학을 졸업한 석학들로 연구에 전념하고 있었다. 자연에 굴복하지 않고 자연현상을 살피고 끝없는 연구로 인간의 편에 유리하도록 이용하는 지혜가 돋보이고 대부분의 센터 연구결과물이 기술지원이나 실지 사업에 반영되어 실사구시에 강한 서양문화에 진면목을 볼 수 있었다.

구 수도였던 톨레도도 방문하였다. 서기 579년에 비시고도 왕국의 수도로 정해진 이후 1561년 마드리드로 천도 결정할 때까지 종교, 경제, 정치의 중심지였으며, 13세기 전성기를 이루었다고 한다. 톨레도는 삼면이 굽어 도는 강으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 안에 있으며 톨레도 대성당이 이곳에서 가장 유명했다.

오늘날까지 수석성당으로 사용되는 대성당은 이슬람 왕국 시절에는 회교사원이었던 곳이며, 1086년 알폰소 6세에 의해 톨레도가 수복되었고 이 회교사원은 카톨릭 성당으로 개조되었다. 고딕성당으로서 정면의 야나문, 사자의 문이 특색있고 내부의 트렌스빠란떼는 돔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빛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자태의 진면목을 나타낸다. 대재단의 병풍 내부 조각들이 보는 이의 숨을 멎치게 하며 성가대실의 의자마다 새겨진 성경인물 조각 등 성당 내 모든 규모와 그림들이 가치 압권이였다.

### 신화와 현실이 뒤엉키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마법의 나라 모로코

이윽고 나는 발을 돌려 남아프리카로 향했다. 지도를 바라보던 나의 시선과 지평선이 맞닿은 곳은 카사블랑카, 탕헤르, 페즈... 그 도시들의 이름만으로 알 수 있듯이 이미 수세기 전부터 서구의 침략



을 받아야 했던 전략적 요충지이며 유럽의 끝점과 만나는 아프리카의 관문인 곳, 바로 모로코였다. 이 나라는 스페인에서 뱃길로 겨우 두시간 거리이며 유럽 각 도시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거리이지만 다른 대륙, 다른 역사, 다른 종교와 인종을 품고 있다. 모로코는 아랍권에 속하는 나라이며 동시에 아프리카와 유럽, 오리엔탈리즘이 섞인 이국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아니 어쩌면 섞였다기보다는 독창적이라 할 수 있다. 위로는 지중해, 왼쪽으로는 드넓은 대서양이, 동쪽으로는 거대한 아틀라스 산맥과 사하라 사막에 둘러싸인, 그야말로 천연 요새라 할 수 있는 나라이다. 다른 북아프리카의 나라와 달리 한 민족이 계속 이 땅을 차지하여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러한 지형적인 이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베르베르족인 이들은 기원전부터 수천 년간 이 지역을 지키고 있으며 현재도 모로코 인구의 45%에 육박하고 있다.

모로코는 19세기에 열강의 쟁탈전이 가장 치열했던 지역이기도 했다. 스페인이 오랫동안 점령하고 있던 이곳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 의해 도시들이 유린당했고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간의 신경전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1912년부터 1956년, 모로코가 독립하기 전까지 프랑스는 실질적인 점령국이었고 북쪽의 몇몇 지역은 스페인이, 지브롤터는 영국이 점령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중해와 대서양을 끼고 있는 북쪽과 서쪽의 해본 도시들은 구시가지들을 제외하고는 빠르게 서구화되어가 유럽인들에게 타락하고 지저분한 도시로 표현됐던 탕헤르와 전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린 영화의 제목이 된 도시 카사블랑카 등은 과거의 유산을 포기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해 아쉬움이 남았으며 모로코는 마치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뛰어넘은 시간 여행인 듯 했다.

## ‘역사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포르투갈의 알케바담, 돈이 되는 재해예방 사업

포르투갈에서는 알케바담 관리시설사업을 견학했다. “역사는 미래를 건설한다”는 말대로 1968년에 시작한 프로젝트 사업이 지금도 진행되어 2015년에 완공될 계획이다.

사업의 시발점은 약 100년 전에 전략적인 물 사용을 위해 다목적 프로젝트로 1950년도 말에 알렌테주의 관계 계획이 실현될 때부터 받아들였다. 긴 세월을 거쳐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다분투자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현재는 알케바담 프로젝트는 알렌테주에서 일어난 어떠한 일보다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되었으며 포르투갈 정부의 원천이기도 하다.

재난예방사업을 통하여도 거시적 경제가치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재난사업에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알케바담의 사례와 같이 재난예방사업을 통하여 사양길에 있는 건설 경기도 일으키고 일자리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유럽은 자유로운 나라라는 생각과는 달리 주변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나라들이다. 유적지 보전을 위한 신축건물에 대한 규제, 좁은 도로에 소형차와 자전거로 만족하고 심지어 자연과의 조화를 위하여 지붕색깔까지 규제받을 수 있는 시민의식과 도시를 설계할 때 ‘빨리빨리’가 아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축 휴머니즘과 친환경적인 설계로 도시가 정비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이 유럽을 다시 가고 싶은 전 세계 유명 관광지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연수를 마감하며 모든 분께 감사

연수를 마치면 늘상 느끼는 것이지만 즐겁지만 하면 끝난다는 것과 보는 만큼 안다는 것이다. 전자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후자는 현업에 돌아와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무형의 가치와 지적 인프라가 확충되고 큰 자산이 되어 유용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해외연수 기회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 해외연수를 통하여 방재대책에 대한 많은 것을 보고 배웠고 국제적 안목도 넓어졌다. 연수

시 얻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일선에서 방재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끝으로 연수기간 동안 빠듯한 일정임에도 개인보다는 연수단을 먼저 생각하고 협조해 주신 연수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며 시정현안이 산적해 있고 처리해야 할 바쁜 업무가 많은 데도 연수를 허락해 주신 김윤주 군포시장님과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을 운영해 주신 강병화 한국방재협회 회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2012상반기 방재담당공무원 해외연수

### 1. 연수목적

[연수 주제] "유럽 남부지역 국가의 하천치수 및 방재대책"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등 유럽 서·남부지역 3국의 하천치수 및 방재대책 현황을 파악하고 대표적 방재기관 및 관련 시설의 견학을 통하여 자치단체 방재관계 공직자의 업무능력 함양을 도모하고자 함.

### 2. 연수개요

- 연 수 국 :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연수일정표 참조)
- 주 관 : 한국방재협회
- 후 원 : 소방방재청
- 연수기간 : 2012년 04월 22일(일) ~ 05월 01일(화) <8박10일>
- 참 가 자 : 방재담당공무원 및 방재협회 회원 37명 (참가자 명단 참조)

### 3. 방문기관 및 견학지역

- 스페인 지역
  - 마 드 리 드 CENTRO DE ESTIDOS IDROGRAFICOS(CEDEX, 수리연구실험센터)방문
  - 마드리드 시민보호청 방문
  - 꼬르도바 구시가지 수방시설 견학
  - 그라나다 시가지 견학
- 포르투갈 지역
  - Alqueva 댐 관리사무소 방문(가뭄방재 관계용수 등 다목적댐)
- 모로코 지역
  - 페즈지역 시민보호청(소방서) 방문
  - 고대도시 메디나, 로얄팰리스 수방시설 견학

### 4. 추진일정

- 연수기본계획 소방방재청 협의 : '12. 02. 28
- 시·도에 연수계획 통보 : '12. 03. 07

- 연수대상자 추천(시·도 → 방재협회) :

'12. 03. 15

- 연수대상자 확정 및 여권발급수속(개별) :

'12. 03. 16

- 오리엔테이션 및 해외연수 실시 :

'12. 04. 22 ~ 05. 01

## 5. 연수 경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스페인, 포르투갈, 아누스의 두 얼굴 모로코

6. 연수세부일정

일자	지역	교통	시간	주요 일정	식사
제1일 4월22일 (일)	인천 헬싱키 마드리드	AY042 AY3183 전용버스	7:00 10:20 14:00 16:55 20:55	인천공항집결/오리엔테이션 인천출발/헬싱키항발 헬싱키국제공항 도착(환승) 헬싱키출발/마드리드 항발 마드리드 도착 호텔투숙(Amura Alcobendas)	중:기내식 석:기내식
제2일 4월23일 (월)	마드리드 톨레도 마드리드	전용버스	8:00 10:30	▣ 마드리드 수리연구센터(CEDEX) -해안,수리,도로,지반등 기술 지원 및 응용연구 기관 호텔투숙(Amura Alcobendas)	조:아메리칸식 중:현지식(샐러드, 뼈에어) 석:한식(김치찌개, 불고기, 김치)
제3일 4월24일 (화)	마드리드 꼬르도바 그라나다	전용버스	전일 10:00	▣ 마드리드 소방&방재청(시민보호청) - 국가재난기관 → 4시간30분 이동 호텔투숙(H2 Granada)	조:아메리칸식 중:현지식(마늘스프, 비프스튜) 석:호텔식(3코스 또는 뷔페식)
제4일 4월25일 (수)	그라나다 타리파 탕헤르	전용버스 페리호	전일	◆꼬르도바 구시가지 수방시설 견학 호텔투숙(Intercontinental)	조:아메리칸식 중:현지식(뜨르띠야,농어구이) 석:호텔식(3코스 또는 뷔페식)
제5일 4월26일 (목)	탕헤르 페즈 카사블랑카	전용버스	전일	탕헤르출발/페즈항발(3시간소요) ▣ BATHA 지역 POMPIER 시찰 페즈출발/카사블랑카항(4시간소요) 호텔투숙(Washington)	조:아메리칸식 중:현지식(샐러드,쿠스쿠스) 석:호텔식(3코스 또는 뷔페식)
제6일 4월27일 (금)	카사블랑카 라바트 탕헤르 타리파 세비아	전용버스 페리호	9:00   20:00	라바트경유, 탕헤르 이동(4시간30분) 타리파출발/세비아항(3시간) ◆세비아 시내 견학 호텔투숙(Andalusi Park)	조:아메리칸식 중:한식도시락 석:호텔식(3코스 또는 뷔페)
제7일 4월28일 (토)	스페인 리스본	전용버스	8:00 16:00 18:00	포르투갈로 이동(3시간) ▣엘케바(EL QUEVA)댐 관리 시설 방문 리스본항발(2시간) 호텔투숙 (1,REAL OEIRAS)	조:아메리칸식 중:중국식(몽골바베큐, 뷔페) 석:현지식(샐러드, 바깥라우)
제8일 4월29일 (일)	리스본 메리다 마드리드	전용버스	7:00  20:00	리스본출발/메리다항발(4시간소요) 마드리드항(4시간) 호텔투숙(Amura Alcobendas)	조:아메리칸식 중:현지식 (가스파초, 로스트치킨) 석:한식 (육개장, 가자미구이, 찬)
제9일 4월30일 (월)	마드리드 헬싱키	전용버스 AY3184 AY041	9:00 10:15 15:30 17:30	마드리드 공항이동 마드리드출발/헬싱키항발 헬싱키도착(환승) 헬싱키출발/인천항발	조:아메리칸식 중:기내식 석:기내식
제10일 5월01일 (화)	인천		8:20	인천국제공항 도착	

회원광장